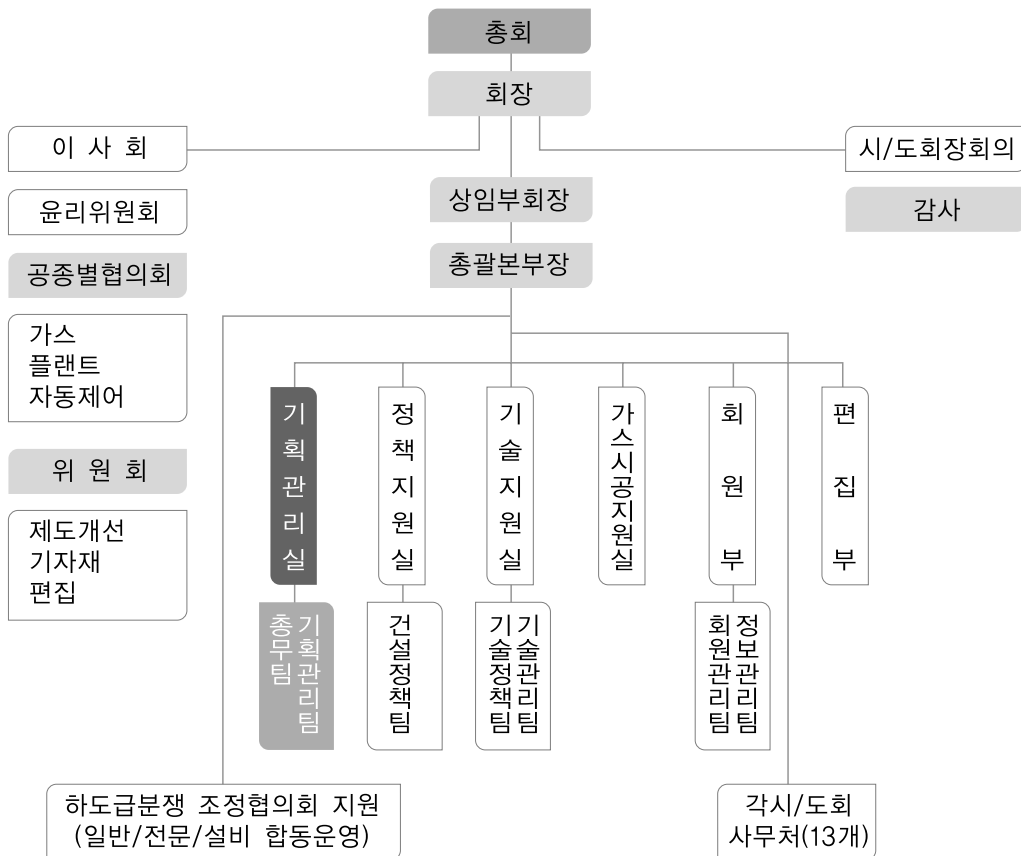


# 협회의 사업집행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설비건설협회 기획관리실

본지는 지난 2008년 5월호부터 서울특별시회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호에 제주특별자치도회까지 13개 시·도회 사무처를 게재함으로써 대한설비건설협회 시·도회의 사업추진 및 업무현황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호부터는 전국 · 13개 시·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 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호는 협회의 사업집행 및 행정업무 등 협회 운영의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 조직도



## □ 기획관리실의 주요 기능과 역할

우리 협회의 사무조직은 본회의 4실 2부(기획관리실, 정책지원실, 기술지원실, 가스시공지원실, 회원부, 편집부)와 13개 시·도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기획관리실은 부서자체 고유업무를 비롯하여 각 사업부서와 시·도회의 업무를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는 연도별 예산편성과 결산보고, 협회 사업집행을 위한 각종 회의운영, 자금 입·출금처리 등 회계업무, 구매입찰 및 계약업무, 인사·서무업무, 경조사 등 의전업무, 대외기관업무, 외국관련단체 친선교류업무, 내부감사 수행 및 외부감사 협조, 제규정 개정 및 관리업무, 4대 보험업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관련 단체 중에서도 예산 규모와 사무처 직원의 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가 대외적으로 타 단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기계설비공사 분야의 업역을 확대하고 회원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 사업부서와 시·도회 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지원하고 있으며, 응집력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부적 체질을 강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 □ 각종 회의 운영

연 2회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에 매진함은 물론, 안전으로 상정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협회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각 연 4회씩 개최되는 이사회와 시·도회장회의 개최 준비를 비롯한 회의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시·도회장회의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제반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함으로써, 회원사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유관단체 업무처리 및 관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설관련 18개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건설 3개 단체) 등 설비건설 유관단체와 긴밀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지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 협회를 위시한 건설 18개 단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주관으로 매년 '건설의날 기념식'을 개최, 설비건설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하여 다년간 묵묵히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토록 함으로써 회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해외 설비건설단체와 상호교류

설비건설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설비건설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기술협력 및 상호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998년 6월 필리핀 및 베트남 건설협회와, 1999년 8월에는 중국안장협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중국안장협회와 우리 협회 각 시·도회별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함으로써 중국진출의 실질적인 발판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 □ 협회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난 2009년 8월 25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국토해양부차관, 국회의원, 유관 단체장, 학계·교수, 공공발주기관, 한국종합건설기계 협의회원, 설비건설업계 대표 및 언론사 기자 등 대내외 인사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 제2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거행하였다.

기념식은 축하공연, 회장 기념사, 축사(국토해양부장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및 경과보고, 비전선포, 협회홍보 동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성년식을 치른 협회는 기계설비의 성장과 위상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한성장 가능성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 □ 일반업무

협회의 주 수입원인 회비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협회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기에 적정한 회비 부과와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회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귀중한 회비가 적재적소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통한 물품구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산운영과 결산, 세무, 금전 입·출금 등 빈틈없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의 안정된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해 힘쓰고 있음은 물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정기적으

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규채용과 승진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년마다 국토해양부의 종합감사를 받음으로써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의 회무집행이 이뤄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 정기 감사를 통해 업무환경 개선과 정화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협회 특성상 빈번한 대내외 행사와 경조사업무, 회원사의 친목행사를 위한 의전, 제규정 개정 및 관리, 직원복리후생, 문서수발, 기타 민원업무처리 등에도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시·도회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과 승인, 월계표 점검, 기타 본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업무지원 등에도 허술함이 없도록 기획관리실 직원 4명(실장 안구근, 차장 이기홍, 비서 이진이, 직원 서경진)은 항상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한눈에 보는 세계사와 유명인물

#### 홍해를 건넌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저서 <성 헬레네의 회고록> 1권에는 “나폴레옹은 맨발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이 나온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인들과 함께 건넜다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힘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하지만, 나폴레옹이 홍해를 건넌 일은 기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바르 에 콜쑈(익사의 바다)이라고 불리는 수에즈 만 근처의 마을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때 홍해는 모래톱 때문에 수심이 아주 낮았고, 1.6km 정도의 너비로 펼쳐져 있었다. 또한 조수의 높낮이는 1.5~2.1m였으며, 썰물의 높이는 1m 정도였다. 당시의 바람, 조수, 모래톱, 수심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다.

#### 전쟁을 일으킨 구레나룻

프랑스의 왕 루이 7세는 비운의 구레나룻을 가지고 있었다. 루이 7세는 귀엔느와 프와투 두 지방을 마지막으로 다스렸던 공작의 딸 엘레나와 결혼했다. 엘레나는 귀엔느와 프와투를 신부 지참금으로 가져왔다.

루이 7세는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뒤 자신의 구레나룻을 면도했고, 엘레나 왕비는 더 이상 왕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 마침내 루이 7세와 이혼

한 엘레나는 영국의 헨리 2세와 재혼했는데, 루이 7세에게 자신이 결혼할 때 가져왔던 귀엔느와 프와투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루이 7세는 헨리 2세에게 선전 포고를 했다. 루이 7세의 구레나룻으로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은 301년 후 로엔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